



# 미디어/엔터

## 궁금한 이야기 #1. 중국

미디어/엔터 이현지 hjlee1@eugenefn.com

### 중국 시장, 이상과 현실

올해 상반기 엔터사들 주가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. 한한령 이전인 2016년 3 월, 빅뱅이 중국 본토 지역에서 팬미팅 투어만으로 29 회, 약 55 만명을 모객하며 당시 콘서트 및 MD 합산 매출로 약 360 억원을 벌어들였는데, 당시 평균 티켓 가격은 약 75,000 원으로 시장 규모 차이를 고려해 현재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아티스트 당 300 억원 내외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.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라면, 기획사마다 중국에서 공연할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그룹이 최소 2 팀은 된다. 사실 더 많다. 즉, 열리기만 한다면 또 다른 매출 업사이드가 생기는 것이다.

단순히 우리만의 이상이 아닌 점은 올해 들어 중국에서도 시장 개방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. 최근 텐센트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지분 전량을 확보하며 에스엠의 3 대 주주(9.7%)로 올라섰고, 텐센트 뮤직은 실적 발표 자료에서 에스엠, 카카오엔터, 스타쉽, 와이지엔터 등 한국 엔터사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. 어찌 보면 중국 시장 열광은 당연하다.

### 숫자적 움직임 말고, 진짜 움직임은 언제쯤 보일까?

다만,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. 한한령 이후 지난 8 년 동안 중국에서 공연을 진행한 한국 국적 가수는 래퍼 '호미들'이 전부이다. 원칙적으로 한국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업 공연용 취업 비자인 Z 비자가 필요한데, 수익을 추구하지 않거나 문화교류 성격이 강한 행사는 M/F 비자(방문/교류비자)로 진행이 가능하다. 언론에 따르면 호미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.

중국은 공연이 예정되었다가도 갑자기 연기/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,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의 영역인 듯 하다. 이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내로 한국 아티스트의 중국 내 단독 공연을 기대해보지만, 현실적으로 페스티벌 형식의 문화교류 행사는 충분히 기대해볼 법하다. 더불어 각 기획사마다 메가 IP 들의 월드투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, 특히 쓰촨성과 하이난성은 올해 대형 콘서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를 발판으로 내년 중국 단독 공연 개최 기대감도 무리는 아니라 판단한다. 보수적으로 생각하되 기대감 또한 놓을 수 없다. 언제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모를 일이다.

6/27 일에 텐센트 뮤직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. 최근 한국 엔터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

### 한 주 간 주요 뉴스

#### BTS 완전체 임박, 21 일 슈가 소집 해제로 전원 군 복무 마무리

6/10 일 RM 뷔, 11 일 지민·정국이 각각 전역. 6/21 일 슈가 소집 해제를 마지막으로 BTS 7 인 모두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BTS 완전체 활동 준비도 본격화할 예정

#### 트와이스, 7·8 월 韓日 캠백에 채영 솔로 데뷔, 새 월드투어까지

트와이스가 7 월 정규 4집 발매와 함께 새 월드투어 '디스 이즈 포'에 돌입 할 예정. 전 개최지 360 도 전면개방 공연으로 역대급 스케일을 예고함. 8 월에는 3 년 8 개월 만의 일본 캠백을, 하반기에는 멤버 채영이 팀 내 4 번째 솔로 데뷔를 준비 중

#### 공정위 티빙-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, 관건은 KT 동의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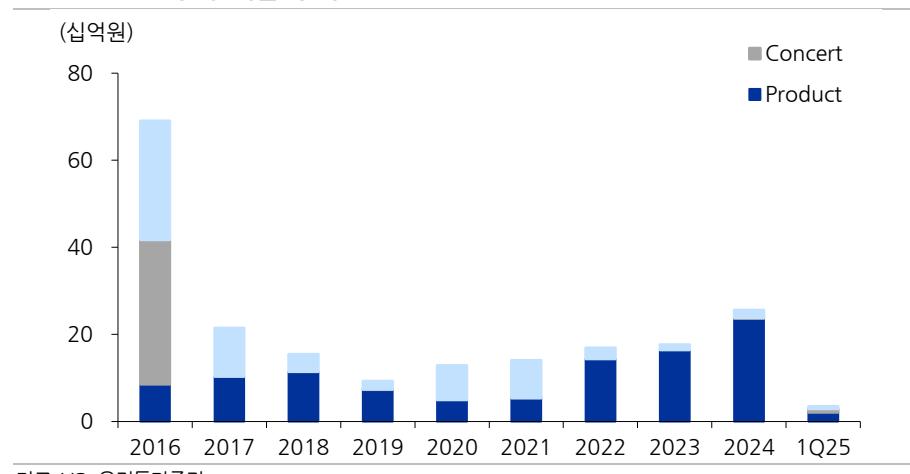
6/10 일 공정위가 티빙-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. 2026년 말까지 티빙, 웨이브 현행 요금제 유지 및 서비스 통합 후 현 수준의 통합요금상품 제공을 조건으로 함. 주요 주주들은 합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, 티빙 2 대주주인 KT(자회사 KT 스튜디오지니)의 동의가 관건

도표 1. 빅뱅 2016년 중국 투어(팬미팅) 일정

공연 지역	공연 일정	공연 지역	공연 일정
상하이	3/11~12	다롄	6/26
선전	3/13	충칭	6/30~7/2
정저우	3/17	청두	7/3
난징	3/19	광저우	7/7~9
허페이	3/20	쉬저우	7/10
항저우	3/24	시안	7/12
난징	3/25	뤄양	7/13
창사	3/26	베이징	7/15~17
톈진	6/5	중산	7/21
포산	6/10	홍콩	7/22~24
난닝	6/12	마카오	9/3~4
하얼빈	6/24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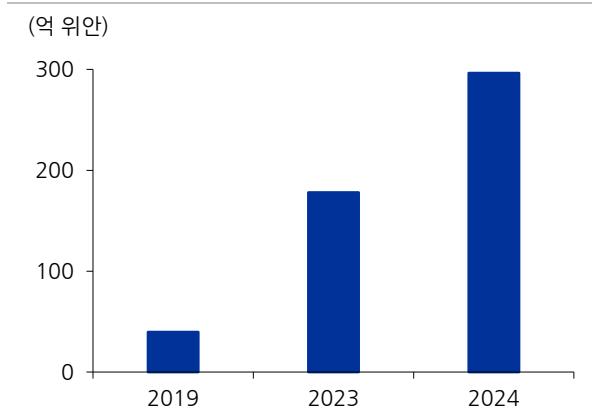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종합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YG 중국 매출 추이



자료: YG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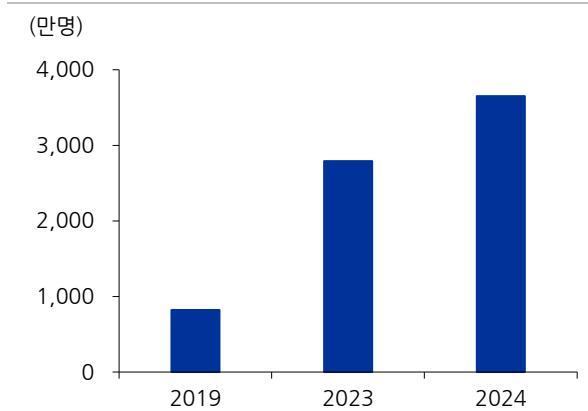
도표 3. 중국 대형 상업성 공연 티켓 판매액



자료: KOCCA, 유진투자증권

참고: 대형 상업 공연 기준은 5천명 이상 관객 수용

도표 4. 중국 대형 상업성 공연 관객 수



자료: KOCCA, 유진투자증권

참고: 대형 상업 공연 기준은 5천명 이상 관객 수용

도표 5. 하이난성 대형 콘서트 보조금 지원 기준

구분	누적 유료 관객 수	티켓 매출 규모	하이난성 외 지역 관객 비율	지원 금액 (일회성 보조금)
1 단계	2 만명 이상	1,000 만 위안 이상	해당 없음	최대 50 만 위안
2 단계	3 만명 이상	1,500 만 위안 이상	해당 없음	최대 100 만 위안
3 단계	5 만명 이상	2,500 만 위안 이상	40% 초과	200 만 위안
4 단계	10 만명 이상	5,000 만 위안 이상	50% 초과	300 만 위안

자료: KOCCA, 유진투자증권

도표 6. 외국 아티스트 중국 내 공연 승인 절차

단계	내용
1 단계	중국 공연기획사 협회 및 계약 체결
2 단계	공연 기획안 제출 및 문화관광국 공연 허가 신청
3 단계	허가 승인 후 초청장 발행
4 단계	아티스트는 비자(Z/F/M) 신청 (주중 대사관 제출)
5 단계	입국 후 현지 체류등록, 필요 시 공연 전 현장 검열 진행

자료: 언론종합, 유진투자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  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 
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**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**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6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4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5.03.31 기준)